朝鮮日報 朝刊

池田警務局長 諸工場視察

池田警務局長은 工場에關한 諸取締의 實情調査를爲하야 二十七日 午前九時 佐伯警察部長、總保安課長案內로 京城府內外諸工場을 視察하엿다

社說 思想取締의轉換 —자라리 그根源을改善하라—

一

當局은 最近 思想取締에 對하야 從來 彈壓、嚴罰의 主義를 쓰든것을 버리고、懷柔、轉向의 主義를 쓰리라한다。이리하야 一旦 法網에 걸린 이라도 轉向의 意思가 充分하다 하면 投獄을 안코 釋放하야 思想善導團體에 넘겨 指導케하고 設使 刑期를 마치고 出獄한 이라도 要視察人으로서 監視를 嚴重히하야 反撥心을 이르키든 方針을 버리고 되도록 放任하야 저절로 轉向키를 圖謀하리라한다。當局의 今次의 方針轉換은 從來의 方針이 만흔 弊害를 伴하얏음에 比하야 一段의 進步政策이라 할수잇거니와 그러나 吾人은 이것과 兼하야 그 思想問題를 이르키는 根本問題를 徹底히 改善할것을 主張하는바이다。

二

무릇 思想은 그 時代의 世相을 反映하는것이다。飢餓이 잇는곳에 盜賊이 盛하고 有閑한 社會에 淫逸、糜廢의 風이 流行한다。希望이 만흔 곳에 勤勉、力作이 잇고、窮望의 곳에 自暴、自棄가 잇다。王政의 暴壓미레서 自由民權主義가 이러낫고、近代 資本家의 橫暴에 社會主義思想이 이러낫다。그러므로 思想은 더퍼노코 彈壓이나 嚴罰로만 解決될것이 아니오、그 社會의 本源을 改善하야 思想을 善導할지니 秦始皇의 坑儒焚書나 帝政露西亞의 專制政治도 能히 思想을 善導치 못하지아니햇는가。어찌 佛國과 露國과 中國에 뿐이리오、洋의 東西와 史의 古今을 莫論하고 이 原理는 어느 歷史와 어느 社會에나 適用될것이다。

三

從來 朝鮮에는 思想的 犯人의 만흔것으로서 一種 特徵을 가지고 잇섯다。이것은 當局에서 發行되는 刊行物의 犯罪者內容을 보아도 斟酌할 일이다。當局에서는 이것을 單純한 附和雷同으로 取扱하며 或은 心氣未定의 청년은 이의 作戲로 歸한바 만헛다。그러나 過去 그가 彈壓과 嚴罰이 잇섯슴에도 不拘하고、그 犯罪者의 數爻를 減縮지 안헛슴은 이런 思想을 誘發시킬만한 某種의 社會的 缺陷이 存在치 안헛슴가。農村의 凋落、知識階級의 無希望等은 모다 이런 思想을 誘發시킬 根源이 되지 안헛슴가。그러므로 過去 一部朝鮮靑年의 思想이 激越하얏다면 이에 基因한것이오、決코 朝鮮靑年의 好奇的 心理에서 끌린것이라고만은 解釋하기難하다

四

그러므로 當局이 思想取締에 對하야 彈壓、嚴罰主義대신에 懷柔、轉向의 主義를 씀은 從來의 非를 補足하는 點에 잇서 一進步라 할지모르나 當局은 좀더 思想의 根源이 되는 모든 缺陷을 改善키에 努力할것이다。朝鮮人에게 自由잇게하며、富하게하며、希望을 가지게한는것은 곳 朝鮮人의 하고저 하는바를 充足케하는것이다。無斷한 彈壓嚴罰이 不當하든것과 가티 社會의 缺陷을 放置한 諸思想善導政策은 萬全의 効果를 나내지 못할것이다。

首相、兩長老를식혀 政治的工作開始

陸軍側讓步안하면豫算編成前途悲觀

藏相의決意依然强硬

(東京電話電通) 明年度豫算編成에對하야 二十六、七兩日의豫算閣議는 全然無効로 終了되엇는데 陸軍、大藏兩當局의 對立으로 最後의 閣議에서 暗礁에逢着되여 所謂協調豫算은 名實共히 破綻되여 政府는 자못窮地에서게되엿다 岡田首相은 그推移를 자못 憂慮하고 軍部側의 그後 情報를 聽取하는 同時에 陸軍豫算圓滿解決에 對하야 二十八日朝來 苦慮를 거듭하고잇는데 그대로 나가면 到底히 陸軍、大藏兩當局의 直接交涉에依한 接近은 全然不可能하게되엇슴으로 마츰내 岡田首相自身이 그 政治的解決에 臨함 最後의態度를 決定하고 爲先 그始初로 望月遞相을 斡旋케하기로되엇다 即 右首相의意見을 體하야 望月遞相은 二十八日 高橋藏相과 長時間에 亘하야 會見하고 그結果를 가지고 岡田首相을 訪問하야 藏相의 眞意를 述하는同時에 善後策에 對하야 協議를 進行하는 一方 町田商相도 同日午前 官邸에 招致하고 長老閣僚로서 意見을 徵한바잇섯다 그러나 此等 兩相의 見解로 보드라도 高橋藏相의 公債漸減主義堅保의決意는 자못 强硬하다 이미 大藏當局이 承認한 明年度豫算에잇서 國防費 總額十億五千萬圓은 現下財政으로보아 最大限度의것이라하야 이以上讓步하기는 困難한 模樣인바 結局 陸軍側이 讓步할수밧게업다는 結論으로 기우러지고 잇슴으로 軍部의 態度로보아 이妥協은 困難視되는바 그만큼豫算編成의 前途에 益益暗影이 浮動하고잇다 이때문에 二十九日午後一時半부터 開會될 第三次豫算閣議에서도 依然 그解決은困難하다하야 悲觀視하고잇다(寫眞은 岡田首相)

冀東防共委員會 北寧線正式接收

英國借欵으로써建設된만콤

國府、國際問題化할듯

【天津二十八日發電通】冀東防共委員會는 二十六日以來 그統治區域內에잇는 北寧線을正式으로 接收하엿다 이에對하야 北寧鐵路當局은 國民政府鐵道部에 對하야 對策을 請願하엿는데 同線은 英國借欵으로써 建設된 鐵道이며 또北中에 잇서서 英國의 最大權인 開灤炭坑地帶를 擁하야 從來英國側이 絕對權을 掌握하고 잇는關係로 中國으로서는 英國의 勢力을依賴하고 抗爭하야 複雜한 國際問題化에 努力할것은 明白한바 그推移는자못注目되여잇다

軍縮會議順序

【倫敦二十七日發電通】英國政府는 日米佛伊等關係國代表와 協議한 結果에 關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十二月六日 英國外務省로카르노室에서 開會될 軍縮會議의 開會式에서는 볼드윈 首相의 開會辭에 이어서 關係各國代表가 各各 演說을 行함

一、委員會는 第一次委員會起草委員會 其他 專門家分科會等으로서組織함 그中 第一次委員會는 事實上 本會議와 同樣으로함 다만 出席代表者가 多少 本會議보다적은것이 相違點이다

一、모다 委員會는 크레아란스에서開催하고 本會議에 入하야 外務省로카르노室에서 開할것

一、十二月九日 英國政府에서는 開催하야 各國代表를 크리스마스·호텔에招待하야 盛大한 晩餐會를 開催함

一、크리스마스休暇때문에 會議를 休會할때에는 新年初 會議를 再開할與否를 決定할것

그리고 軍縮會議에는 現在 英國自治領政府는 倫敦駐在의 高等辦務官을 代表로 出席시키기로되엇다는 旨를 아울러 發表하엿다

浴湯의儀와및 御命名의儀 日時正式發表

【東京電話電通】新皇子殿下께서 御誕生하압시와 來十二月四日午前九時 親王浴湯의儀를 擧行하실터인데 當日 午前十一時 勅使로 鈴木侍從長을 皇后本宮에 差遣하시와 親王御命名의 儀를 擧行하실터이다 그리고 當日 午前十一時 賢所 皇靈殿 神殿에 親王 御誕生 御命名奉告의 御儀를 擧行하신다는 旨를 二十八日 正式으로 宮內省宗秩寮에서 發表하엿다

蔣氏의威嚇電報로 宋哲元氏一派戰慄

萬若中央의 意思에背叛하는 同時에는

斷然處置한다고威嚇

【北平二十八日發電通】蔣介石氏는 宋哲元氏로부터 綏靖公署就任拒絕電報를 接하는一方『宋氏가 北方自治政權樹立을 決意하엿다』는 報道를 接하고 非常히 激怒하야 二十八日午後 宋氏에 對하야『萬若中央의 意思에 背叛하는일이 잇스면 斷然 處置하겟다』는 峻烈한 威嚇電報를 發하야 宋氏及 其一派를 자못 戰慄케한 模樣이다

蔣氏中心으로 對華北重要會議

【南京二十八日發聯合】蔣介石氏의命을밧고 日間에亘하야 有吉大使及磯谷武官을 訪問하고 重要會見을 한 陳儀氏는 二十八日朝 上海에서 南京에 到着하는直時로 中央軍官學校官邸에 蔣介石氏를 訪問하고 會見顚末을 報告하고 日本側의意向을 傳하엿다 蔣介石氏는 右報告에基하야 何應欽、陳儀、蔣作賓氏等을 招集하고 對華北問題에 對하야 重要會議를 開催하엿다

蔣介石氏自身이 行政院長就任?

汪精衛氏正式辭表提出

【上海二十八日發電通】破局에直面하려하는 對日關係를 打開키爲하야 國民政府는 連日協議를 進行하고잇는데 蔣介石氏는 마침내 自身對日折衝의 表面에進出하는以外에는 方法이업다고決意하고 自身汪精衛氏의 뒤를니여 近近行政院長에 就任하겟다고 二十八日 日本當局에 非公式으로 通知하여왓다 右에對하야 當局에서는『蔣介石自身이 對日折衝의 表面에서 從來의 그릇된 二重政策을 淸算하라는것은 日中兩國間에 오래동안 待望하여온것인데 事態가 이미 今日과 如히 切迫된뒤에 비로서 그非를 覺悟하드라도 到底히 局面打開에 期待를 가질수업다고 觀하고잇다

【上海二十八日發聯合】汪精衛氏는 昨二十七日附로 國民政府에 正式辭表를 提出하엿는데 [illegible]하면 汪精衛氏의 負傷은 背部의 致傷이 化膿하야 再起不能하리라고 觀測되므로 假令 今後回復되드라도 到底히 政務에 堪當하기 困難하리라 한다

共產黨天津會議 排日플랜六項決議

【天津二十七日發電通】去二十五日 佛租界에서 열린 中國共產黨天津會議에 列席한 蘇聯駐給係員은 日本征服을 目標로 이미 對應하여 蘇聯邦은 極東軍二個師를 庫倫鳥得一帶에 移駐시킬 豫定이라는것을 報告하고 黨員의 蹶起를 促한 後 左의 決議를 行한것이 判明되엇다

一、官傳을 擴大하야 北中住民의 抗日運動을 果敢케할것

二、天津市擾亂은 準備되는대로 決行할것으로서 黨員은 當分禁止할것

三、各支部는 民衆에게 個別的 河北現狀을 認識시켜서 忠實한 同志獲得에 努力할것

四、靑年團、各大學、各中等學校內의 運動을 進行할것

五、失業勞働者를 糾合하야 戰鬪部隊를 組織하야 擾亂活動의 第一戰에서게할것

六、自治運動의 徹底的破壞를할것

宋哲元氏、何氏에 綏靖主任辭任傳達打電

【南京二十七日發聯合】宋哲元氏는 二十七日 何應欽氏에게 河北察哈爾綏靖主任辭任을 中央에 傳達하기를 打電하여왓는데 全文은 左와如하다

平津兩市의 治安은 아직도 容易하지안코 特히 河北察哈爾兩省의 綏靖은 더욱困難함으로 不肖哲元은 中央이綏靖主任의 重任을 免케하기를 願한다 이것이 宋哲元辭任의 眞意이다

陸軍幾分讓步乎 兒玉拓相斡旋努力

【東京電話聯合】兒玉拓相은 二十八日 午後三時半 陸相官邸에 川島陸相을 訪問 約二十分에亘하야 陸軍의 再復活要求에 關한 最後의 態度를 聽取하고 辭去하엿는데 陸相은 如前히 三千萬圓의 再復活必要를 力說하고 잇스나 어느程度의 讓步는 可能하다고 觀測되게되엿다

辭令

平北郡屬 金泰根
任郡守(八等)命平北寶山郡在勤
郡守(龍川) 金永培
命平北義州郡在勤
郡守(定州) 張文華
命平北龍川郡在勤
郡守(宜川) 田島泰秀
命平北定州郡在勤
郡守(雲山) 林文碩
命平北宜川郡在勤
郡守(義州) 曹禧連
依願免本官

一事一言 社會와現代(下) 長白山人

그러타하면 이 矛盾된 理想과 現實에 잇서서 우리는 어떠한 態度를 取할것인가。杜翁이나 또 더 올라가서 佛陀나 聖者나의 理想에 對하야 어떠한 態度를 取할것인가。

우리는 땅에다가 발을 붓치고 하늘로다가 머리를 두고사는 모양으로 現實에 살면서 理想을 바라서는 아니되는것이다。目前의 冷酷한 現實은 마치 理想을 한 嘲弄으로 否定하는듯하지마는 人類가 理想을 버릴때에는 마치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고 서 예지못할 때와 마찬가지로 生命을 일어버리는것이다。우리가 理想을 向하고 우으로 우으로 허우적거리는 努力이야말로 人類의 生命이아니냐。

우리는 現實을 無視할 때에 冷笑하여버릴 때에 理想에 못치고 마는것이다。여기에 人生의 道가 잇다。그것은 곳 中이다。

現實에 발을 딱 붓치고 理想의 未來를 끌어잡아당기는 純實잇는 努力—이것이 人生의 正道다。個人生活에서도 그러하고 家庭生活에서도 民族生活에서도 그러하다。全人類의 久遠한 生活도 結局은 現實에 발을 붓친 理想에의 向上이오 前進의 努力이다。

憎惡、鬪爭、殺戮—이것이 人生의 今日의 現實이 아닌것이 아니지마는 그러나 우리네의 [illegible]한 마음의 所願은 慈悲와 平和이다。天地가 찌부러지도록 검은 구름이 덥히고 비가 [illegible] 오늘의 [illegible]라도、그러나 理想은 벗치나고 바랏자는 밝은 날이 오고야마는것이다。人類의 生命은 無限인데 時代의 現實은 一時的이다。사랑과 平和의 가남한 人情과 努力을 決코 冷笑할것이 아니라 비록 毒瓦斯마스크를 쓰고 戰爭의 戰線에 서더라도 사랑과 平和의 理想은 우리들의 靈과 心臟의 鼓動과 함께 쉬일수도업고 또 가장 所重한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朝鮮人은 이理想의 信徒에 가장 適任이아닌가。

杜翁과 現代의 얼른 보기에 矛盾된 反面에는 이러한 微妙한 一致가 잇는것이다。(完)

商工業視察記

資本과科學連結 偉大한結果招來

① 方應謨

나는 今番 個人으로 商工業을 觀察하기 爲하야 大阪、東京、名古屋等地로 한바퀴 도라왓다。十月二十五日에 떠나서 十一月十六日에 도라왓스니까、旅行期間은 二十二個日을 要햇스나 비록 私行이라고 할지라도 그地方까지 가서는 新聞社關係의 諸位를 訪問해야 되고、또 來訪을 밧게 되는 關係로 因하야 이만한 時日을 全部、觀察目的을 爲해서만 썻다고는 할수가 업스나、그래도 그동안에 各處 大工場은 거이 다 觀察하고、또 實業界에 活躍하는 諸位들도 比較的 만히 차저 보앗 結果로、나로서는 所得이 적지 안헛다。多忙한데도 不拘하고、親히 맛나주신 諸位에게 感謝를 드리는바며 또 同時에 觀察期間中 거이 同行하다시피 하면서 諸敎便宜를 보아주신 東京支局長 金東進君과 大阪支局長 金光洙君에게도 感謝를 드리는바다。

勿論、보고 드른것을 仔細히 紹介하면 우리에게 參考가 될것이 相當히 잇슬것이나、나한테 그만한 時間의 餘裕가 업는것을 遺憾으로 생각한다。所以로 여기서는 所感의 몃가지를 簡單히 적어서 나自身의備忘錄을 삼는 一方、一般의 參考거리가 되기를 希望하는바다。

感想의 첫재로 꼽을것은 資本과 科學을 組織的으로 連結시키면 偉大한 結果를 낫는다는 것이다。어떤 種類의 어느 大工場을 보나、規模와 設備는 크당정、案內者의 說明에 따라서 分析的으로 根源을 따져보면 그것은 結局、化學及物理學의 實驗室內에서 模型的으로 實驗된 結果 아닌것이 업다。말하면 實驗室의 規模를 크게한 것이 即、工場이라는 느낌을 切實히 가지는 同時에 實驗室의 이만지 大規模化하는 原動力은 資本에 잇다는 느낌을 가질수 밧게 업섯다。細流가 一個細流로 잇슬때에는 그힘이 보잘것이 업다가도 모아서 河海를 이루는날이면 偉大한 壓力을 發揮하드시、一社會의 돈이 散散히 흐러저 잇슬때에는 그 利用價値가 보잘것이 업다가도 모아서 大資本을 이르는 날이면 實로 想像도 不及할만한 偉大한 壓力을 發揮한다는 느낌을 切實히 느끼게 되엿다。

사람의 知識及財產程度如何에 따라서는 十圓二十圓의 利用價値如何에 對해서는 分明히 알되、二億圓이니 三億圓이니하면 그利用價値如何를 漠然히 判斷치 못하는 境遇가 잇다는것은 누구나 아는바이다。例하면 十圓을 가지고 쌀을 사면 몃말、衣服을 만들면 몃벌 하는것은 알수가 잇스나 二億圓을 가지고 某種工場을 設備하면 그規模가 얼마나 커지며 또 建物을 지으면 그크기가 얼마나 한지? 하는等에 對해서는 明白한 觀念을 가지기가 좀 어려울것이다。

이것은 一個 譬喩에 不過하거니와 이 譬喩와 마찬가지로 우리 朝鮮사람은 小資本의 힘은 알고 잇스나、大資本의 힘은 比較的 모르고 잇고、科學의 偉力에 對해서는 斟酌은 하나、알지는 못하고 잇지 아니한가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더구나、資本、科學의 兩者를 따로따로 떼여서는 무엇이지 하는것은 하면서도 兩者를連結시키면 그힘이 얼마나 偉大한가? 하는 一事에 對해서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잇지 아는가 하는 느낌이 업지 못하다。科學은 말하면 뿌리요、資本은 말하면 枝葉이다。枝葉은 오직 뿌리의 힘을 입어가지고야 茂盛할수잇스되、뿌리 또한 枝葉이 업시는 굵어지지 못하드시、資本은 科學의 힘을 입어、가지고야 커지되、科學 또한 大資本의 힘이업시는 發達할수업다는 理致를 切實히 깨다른 느낌이 잇다。(續)

伯刺首都의駐屯部隊 共產黨暴動呼應

政府陸空軍猛烈爆擊

【리오데자네이로廿七日發聯合】首都駐屯步兵第三聯隊一個大隊는 二十七日 共產黨暴動에 呼應하야 나탈시의 聯隊長과 士官數名을 逮捕監禁하고 氣勢를올녓다 밝가스大統領은 即後陸空兩軍部隊를 派遣하야 猛烈한 爆擊을 하는 中인데 午後에至하여도 아직完全히 鎭壓되지안헛다 리오데자네이로航空學校에서도 士官候補生數名이 蹶起하야 格納庫를燒却하고 政府打倒의 旗色을 鮮明히 하엿는데 또 리오市東北方사오·자오市에서도 駐屯部隊가 叛亂을 起하엿기때문에 政府軍部隊는 二十七日午後 리오市로부터 現地에 急行하엿다 當局은 叛亂鎭壓의 確信을 가지고잇다 그러나 右에關하야 부라질政府는 二十七日 리오데자네이로에 勃發한軍隊叛亂에關하야 二十七日夜 如左한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리오市駐屯部隊第三聯隊所屬一個大隊는 二十七日未明에 突然 兵營에 據하야 叛亂을이르켜 나탈市의 共產黨暴動에 呼應하는 氣勢를 보엿는데 政府는 即時 陸空兩軍을 派遣하야 猛烈히 叛亂部隊에 爆擊을 加하야 午後에 完全히 鎭壓하엿다 同日 리오陸軍航空學校에서도 叛亂이 勃發하야 士官候補生이 格納庫에 放火하엿는데 政府의 敏速機宜한 處置로 鎭壓하엿다 爾後의 軍隊에서는 動搖의빗치 全然업고 各種勞働組合도 政府에 從順의意를 表明하엿다。

夕刊後市況 廿八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〇四〇〇	(不變)
鍾新	一四六九〇	(不變)
日產	七九二〇	(二〇高)
東新	一七二八〇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八七〇〇〇 先限八六二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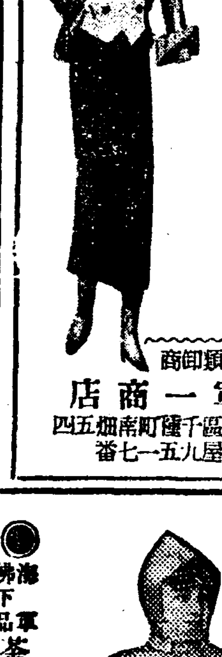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八〇〇 先限 五九七〇

名古屋唯一한製造卸問屋 斷然良品廉價를標語로하는弊店 製品을 仕入하시라。
靑年團 靑年訓練 改正消防 コール天別珍 作業 學生
洋服 製造 卸問屋
學生服、乘馬ズボン、레인코-트其他 加工品製造卸 (目錄進呈)
服地綿布毛織物卸問屋 合資會社 都築商會 名古屋市西區島山町一丁目 電話本局二一四二 振替名古屋六九二二

副業誌・養鷄誌の双璧
良い事・廉い事正に日本一……
月刊 副業の光 모든部門의 副業에 經驗의 메스를 휘두르고 더구나 即效의應用과明日의 副業에의 離陸 白熱的好評全士를 壓倒 葉書 一枚를 投入하야서 見本誌를 請求하라 一部 十錢 半年 五五錢 一年 一圓 名古屋市中區明月町三 副業社 振替名古屋一六一二二
月刊 家禽界 飼料實用을가진 實際經營에 立脚한 半島의 同胞에 本誌를奬勵함 研究記事 毎月滿載 一部二十錢 半年一圓十錢 一年二圓十五錢 見本誌及中禽商報 無代進呈 名古屋公園前 中禽社 振替名古屋一九二六二

現金買 通信購賣의 不安을解消! 日本에서 最初의……
蓄音器의 月賦通信提供
世界的名器スターホンーポータブル 新發賣品 定價三十圓의品五百臺限 大特價十六圓也
初回 金七圓 으로蓄音器와 新譜レコード五枚及針四百本이只今 당신의家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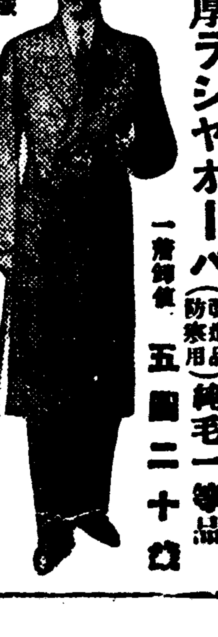
申込方法 葉書로申込次第곳 初回金代金引換으로發送함 荷造費當店負擔 運賃貴方負擔
殘額拂込方法 殘額은品質保證書爲하야 翌月부터毎月三圓式三回로分割하야 郵便局에서集金하려갈 殘額代金은確實한品이라고認證바든後천이바드니 絕對的安心
東京 吉 日吉屋百貨店 蓄音器製作部 岐阜市神田町四丁目五番地 電三七一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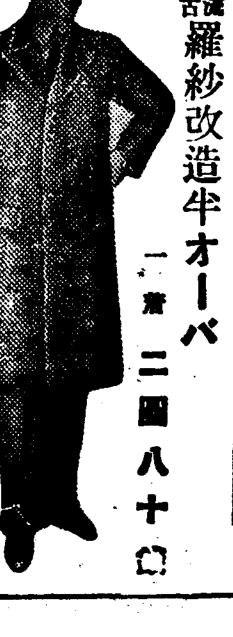

鮮滿支用絹綿古衣各種
新婦着各種、藝娼妓、女給サービス衣 モダン女洋製服オーバ、紳士用洋服オーバ 一式御商(カタログ呈上)
絹綿古衣洋服類卸商 神野軍一商店 名古屋市東區千種町南畑五四 振替名古屋九一五七番

專賣 特許 絕對無砂搗
ウエタ式精米機
農林省比較審查甲位入選
全國米穀同業組合推獎機
▲第三回帝國發明表彰有功賞受領
▲第十三回發明協會地方表彰優等賞受領
本機안이고는 水晶米、胚芽米、無砂米는可望업다

服部商店 名古屋西區泥江町二丁目 電話西一七七六番 (型錄精白見本進呈)

中古洋服類大安賣
今般鐵道省의拂下品을 一大破格的廉價로 提供함

●黑紺 厚ラシヤオーバ(改造品)(防寒用)純毛一等品 一着卸値 四圓五十錢
本品은鐵道省拂下品을改造한 純毛總裏付

●黑紺 厚ラシヤオーバ(改造品)(防寒用)純毛一等品 一着卸値 五圓二十錢
本品은鐵道省拂下品을改造한純毛總裏付厚地防寒用

●中古 賣流 ラシヤオーバ(改造)(一等品) 一着卸値 三圓十錢
●賣流 中古 羅紗改造半オーバ 一着 二圓八十錢

●黑紺 厚ラシヤ防寒用オーバ 一着 四圓二十錢
●鐵道省拂下品 紺厚ラシヤ純毛總裏付 兩前外套(一等品) 一枚ニ付卸値 六圓五十錢

●電氣局拂下品 黑厚ラシヤ純毛兩前外套(一等品) 裏ナシ 一枚ニ付卸値 三圓八十錢
●鐵道省拂下品 紺厚ラシヤ純毛總裏付 片前外套(一等品) 一枚ニ付卸値 四圓二十錢

●遞信省拂下品 黑厚ラシヤ純毛片前外套(一等品) (裏ナシ)一枚ニ付 三圓十錢
●陸軍拂下品 黑厚ラシヤ防寒外套(並品) 一着卸値 二圓十錢

●海軍拂下品 茶厚ラシヤ防寒外套(並品) 一着卸値 一圓九十錢
茶毛布製防寒外套 一着 二圓八十錢

●陸軍拂下品 黑ラシヤ防寒外套(マント帽子付)並品 一枚ニ付 二圓二十錢
葉書로注文하시면一着이라도代引으로發送함
名古屋市東區淸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大二二一九番・振替名古屋一一五二一番

南京政府連絡嫌疑 中國人十餘名檢擧

新義州華工校中心으로策動

平北警察部緊張活動

【新義州電話電通】 신의주경찰서에서는 이십칠일 한밤중으로부터 이십팔일아츰까지 부내에거주하는 류력한중국인 십여명을 검거하엿는데 그것은 반만항일(反滿抗日)을 책동한 혐의때문이라하며 사건은더욱 확대될듯하여 각방면에 충동을주엇다

【新義州電話電通】 금번붙 신의주에 설치된 만주국 령사관하는 만주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의수가 겨우 일백오십명에 불과하나 한편 중화민국 령사관편으로는 구천명이 그대로 잇는터인데 만주국인과 중국인의 교육문제로해서 여러가지 말성이 여러가지로 잇서오든 끄테 이번에 중국령사관에서 경영하는 세공학교에서 대단히 온당치못한 교육을 실시하고 잇든것을 당국에서 탐지하게 되엇고 더욱히 로동자 자제를 수용하는 화공학교(華工學校)는 남경정부와 밀접한 련락이 잇는것이 판명되엇다 그래서 평북도경찰부에서는 비밀하게 활동을 시작하야 증거품을 압수하고 취조를 계속 하는중인데 평북에는 그런종류의 학교가 룡암포(龍岩浦)와 북진(北鎭)에도 잇서 당국은 엄중히 조사를계속중이다

高等課長等出動 第二次檢擧着手

反滿抗日의敎科書를使用이端緖

中國領事館側은抗議

【新義州電話電通】 신의주 중국인검거사건은 그곳에 살고잇는 유력한 중국인이 남경정부와통보하야 그들이 경영하는 학교에 불온한 교과서를쓰고 반만항일의 사상을 주입하든것이란 로된것인데 사건이 발생되자 중국령사는 평북경찰부에 도리어항의를하엿스나 경찰부에서는 그것을 물리치고 안전(安田)보안과장이 신의주경찰서에 출장지휘하면서 오후에는 다시제이단의 검거에 착수하엿다

沿海州朝鮮人 强制移動說

各方面職場으로轉任

【奉天廿八日發電通】 『쏘베트』련방관헌은 최근연해주에사는 조선인에게 강제이동을 명하야어부는『안껜』지방으로 농민과 제재부(製材夫)는『옴스크』부방일천로리(露里)의 지방으로 목공(木工)토공(土工)은 『우스칼스크』『일크쓰크』사이의 철도공사에서 용키로 결정하야 동지조선인들은 큰곤황을 당하고잇다고 전한다

清津市中에서 拳銃實彈發中

이십륙일 오후세시쯤해서 함북청진부 포항동(清津府浦項洞)에사는 만주국세관 관리 진방경(秦方貞)은 그가 근무하는 항정(港町)만주국 세관압 개울에서 삼십이번 구경(口徑) 피스톨 실탄다섯발을 발견하여 즉시 소관 청진경찰서에 고발한결과 동서에서는 그것을 버린 사람을 수사하노라고 관내를 수사하는일방 다른 각지경찰에까지 수배를하엿다

廣州廣新學院 復活後漸發展

광주군 대왕면 신촌리(廣州郡大旺面新村里)에 무산아동교육기관으로 단하나밧게 아니되는 광신학원(廣新學院)은 지금으로부터 십년전 그곳유지김정한(金正漢)씨의 활동으로 창립되여 이래이백여명에 졸업생을 사회에 파송하고 다니노흔 교육기관인데 작년팔월에 부득이한사정으로 폐쇄를하엿든것을 지난구월부터 그곳에 독지가리호연(李鎬演)씨의 열렬한활동으로 다시금 개교를하고 교수를 해오는중인바 금에주린 흔행아동들이 개교한 날부터 흘러드러 현재에는 백여명이나넘어 근방일대의 유일한학교로 발전중에잇다 이러하야 일반동민들은 물론이오멀리에서도 그칭찬이자자하다한다

本社見學 ▲二十七日中央佛專三學年生二十六名 ▲二十八日延專三學年生各科卒業學年四十名 ▲丁抹式高等農事學院生徒十三名 ▲市內華山普通學校六學年生二十六名

太平洋橫斷한 첩펠린航空船

新記錄作成

【伯林二十七日發聯通】 지난이십이일 백림(伯林)을떠나 남미『페르남부코』로향한 『첩펠린』 비행선은 이십칠일 오후에 무사히 페지에도착하엿는데 항공시간은 일백십구시간으로 최고기록을 내엇다

平北女高位置 新義州로決定

明年四月부터開校

【新義州支局電話】 그간위치문제로 신의주(新義州) 선천(宣川) 정주(定州)세곳에서 맹렬한 경쟁을하든 평북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위치는 이십팔일 도지사의 명의로 신의주에 설치하기로 결정한것을 정식으로 발표하엿다는데 명년사월부터 개교키로되엿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신의주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학교경비는 신의주에서 분배 귀부를 밧게되엿다

南米倉町强盜 昨日送局

지난이십팔일오전세시 부내남미창정(南米倉町)고하태랑(古賀太郞)의 점포에 업체를가리고 들어가서 식칼을 빼어가지고도망한지 두시간만에 본정서(本町署)원에게 붓잡히어 그동안 엄중한취조를받고잇든 고창군 무장면 정내리(茂長面內里) 리용우(李容雨)(二○)는 이십팔일 오전열시 강도、절도、업무횡령(强盜、竊盜、業務橫領) 등 죄명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엇다한다

크립퍼機

最終코ー쓰로

廿九日마니라着豫定

【廣東二十八日發聯合】 태평양횡단기 『하이나ー클립퍼ー』는 이십구일 새벽 『괌』도를떠나 마닐라로 가는 최후코ー스로 향하야 갓는데 『마닐라』도착은 이십구일 정오경일듯하다

어린子女매달려울어 結局送局도中止

호몸으로생활못해밀수든녀자

그女子의罪는 누구탓이랴

國境密輸陣의悲話

【義州】 국경의 도시는 밀수의 도시이라 허다한밀수범죄의 반면에 일어나는 인정비극도만호니 이를다말할수 업거니와 그 한례를들면 의주읍동부동(義州邑東部洞) 송씨(宋氏)는 작년에 남편을여이고 나어린 삼남매를다리고 그나마 연명해갈가하는 생각으로 호주(胡酒)밀수를 하다가 벌망에 걸려 취조를받든중 드디어 입건서류와 가티 지난이십칠일 오전십시반에 신의주검사국으로 송치하게되여 자동차에 오를지음 전긔송씨의 아들딸들은 울며어머니에게 매달려 우리를두고 어데를 가요하며 차에오르지 못하게하야 밀수의 필경은 자동차에 올려태우지도 못하고 마럿는데 이정경을보는 경관도 동정의 눈물을 금치못하엿스며 근처에모여든 수십명의 통행인들도 발길을멈추고 동정의 눈물을 먹으면서 아들딸을위하야 약한접은녀자의 몸으로 에써 생활의방도를 꾸미려는남아의 따한말로를 것게되는 정경에 다시금 동정을마지못하야 그녀자의죄야말로 과연「누구의죄일까」를 못고잇섯다

本報空輸祝電

이번에 본사에서 조선최초의 신문공수비행을 한데대하야 함흥부 본정

米穀仲介業者 賣金을橫領

(咸興府本町)사정록 삼십오번지 황규석(黃奎錫)씨로부터 본사장에게 다음과가튼 축전이잇섯다 … 평양잇는 귀사공수비행의성공을 축하(祝賀)하기 마지안는다

三千圓强奪햇든 假刑事賭博黨逮捕

積善洞에서이러낫든事件解決

開城에潛伏中의三名

지난 칠월오후 여섯시반 부내적선동(積善洞)오십사번지 김영긔(金英基)의 집에서 사긔도박단 김정만(金正萬)외 두명이 부내한강통(漢江通)에사는 엄모와 서로얼리여 판을벌리고 도박을 한동 미리부터 내통하여잇든 김정만의 부하 손(孫)모와 최(崔)모가 형사라고 가칭하며 판돈을 훔치자 그들은 가장 놀랜듯이 꾸미고 엄모의판이가 가젓든돈 삼천원을 빼서가지고 어데론지 도망해버린사건이 발생하야 그간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곳곳에 수배하는한편 탐방으로 범인을 수색하든동 이십칠일에 범인들이 개성(開城)모처에 숨어잇다는 소식을 탐지하고 리(李)령목(鈴木)량형사부장과 형사두명이 비밀히 개성까지 출장하야 리(李)모 윤(尹)모 최(崔)모등 세명을 체포하야 이십팔일 오후네시반차로 데려다가 엄중한 취조를진행중으로 머지안허 나머지두명도 체포되야 미궁(迷宮)으로드러가려든 이사건도 꼿 락착될것으로 보인다

【광주二十八日發聯合】 … 지난이십삼일에 마포더창(麻浦) 백미정미소 리경로(李敬魯)의 백미 … 곡물중개업자가 남의 곡물대금을 횡령하야 도주해버렷다 시내마포동(麻浦洞)… 그래서 손해를 당한 정미소에서는 룡산경찰서(龍山署)에신고하야 시내 각경찰서에서 수사하는동이라한다

昨夜大島町의 計器會社火災

이십칠일 오후여덜시 시내 대도정(大島町)일번지 조선계긔회사(朝鮮計器會社)건조공장(乾燥工場)에서 불이이러나 공장안에 싸여잇든 재목대부분을 불살르고 일시호잡을 이루엇든바 즉시소방서에서 출동하야 십오분동안에 진화하여 큰피해에 이르지는 안헛다는데 지난가을에도 불이이러낫든곳으로 발화의원인은 아즉판명되지안헛스나 불을피워노코 재목을 말리다 실화된것갓다하며 피해액은 조사중이라한다

郡、警察職員聯合 作料收納을監視

收納의合理化를企圖

【光陽】 금년 시월일일로서 정조겸사제가 실시되어래 소작료의 수납품집선매등을 중심으로 지주와 소작인간에 분쟁이 만타는 여론이 불하함으로 이를 우려하야 근일 광양경찰서와군

檢擧된蘇聯密偵 連累者關係取調

月前에도왓다가再次入境中

憲兵隊에檢擧된崔某

모처착전=함경북도경원(慶源)경찰서에서는 경원군 안농면리동(安農面梨洞)의 국경도선장에서 수일전에 대안으로부터 조선에 침입하려는거동이 수상한청년을 경계하고잇다가 그청년을 이십륙일에 체포하야 엄중한 취조를한결과 최모(崔某)라는조선청년으로『쏘비엣트』로시아의 군사탐정이것이 판명되엿다 일즉부터 소련『우라디오』군첩보부연추(煙秋)지부의 소속되여잇스면서 약한달전에조선내의군사 경찰교통기타 강방면의 시설과사정을 조사하야본부에 보고하고 다시중대한 사명을띄고 조선에 잠입하다가 체포된것으로 함북경찰부에서는 사건을 중대시하고 련락자를탐색하는동시에 경무국의 지휘를바더가지고 헌병대와 협력하야활동을개시하엿다한다

徽文戰勢不振 養正軍快히雪辱

覇權을左右할今夜一戰

中學部·靑年部 籠球聯盟戰第十八日

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인 第九回籠球聯盟延長戰 第二日의 養正對徽文의 中學首位爭奪戰은 二十八日 午後七時 三十一分부터 鐘路靑年會 體育館에서 兩軍應援團과 一般觀衆의 熱狂的 聲援裡에 열리엇다 徽文軍은 이날게임에 得勝하면 榮譽의 覇權을 掌握하게 될것이며 養正軍은 前日 二十七對 二十六의 一點差로 徽文軍에게 惜敗한雪辱戰이라 觀衆은 最初부터 極度로 白熱化하야 끗까지 緊張한가운데 三十五對二十一로 養正軍이 雪辱하엿다 그리하야 養正軍이 今夜에 中東軍과 對戰하야 得勝한다면 優勝할것이요 敗하면 三校가 또다시 同率이될것이라 聯盟開始以來처음보는 리ー그戰의 興味를 이끌게한다

養正35(15 20 / 8 13)21徽文

中學第一部首位爭奪戰=養正對徽文戰은 同午後七時三十一分부터 李惠淳、宋基亨兩氏審判下에 開始되엇는데 이날兩軍의 戰況은 다음과갓다

【前半】 開戰三分에 養正申宗淳의 一自由投成功되여 1…0 四分에 金容武(徽)의 싸이드(샷)으로 逆轉하고 五分에 方元淳(養)의 自由投成功되어 2…1로 徽文리ー드 … 養正리ー드 … 三分에 徽文 … 十分에 金容武(徽)의 野投로 … 同十二分에 鄭(養)의 … 九分에 方元淳의 自由投 … 野投로 九點을어자 …

第18日戰率 【中學第一部】

順位		試	勝	敗	率
1	養正	8	6	2	0.750
2	徽文	9	6	3	0.667
3	中東	8	5	3	0.625
4	儆新	7	4	3	0.571
4	[illegible]	7	4	3	0.571
4	一高	7	4	3	0.571
5	[illegible]	7	1	6	0.143

【後半】 徽文軍必死的攻擊으로突入하엿스나 … 最後一分을남기고 申宗淳、姜 … 20…13 養正리ー드 …

이때에 張聖璘을「포파울」로 退場하고 白南震과 交代한後 더욱 養正連絡好調로 鄭의野投 二次와 申의 싸이드(샷)으로 끌인되여 結局 三十五對 二十一로 養正軍勝捷

【養正】	前	後	反	
金寧元	6	0	4	F
白南震	0	0	0	F
鄭庚燮	6	5	1	F
申宗淳	3	2	2	C
張聖璘	0	4	4	C
韓世一	0	1	0	G
方元淳	6	2	1	G
	20	15	12	

【徽文】	前	後	反	
姜日東	1	2	4	F
尹相燮	1	0	0	F
黃奎鳳	0	2	0	C
金容武	3	6	4	G
申鳳浩	3	3	0	G
	8	13	8	

一九四十年올림픽 芬蘭서誘致運動

芬蘭올림픽委員長켜려뷰에례지氏는 獨逸、波蘭、스칸디나비아及 발틱諸國을歷訪하야 一九四○年올림픽競技大會를 芬蘭에서 開催하기로 運動하고 「헬싱혼스」로歸來하엿는데 其結果로 因하야서는 上記諸國의 支持를 確保하야 芬蘭開催는 有望視되엿다고 國內的準備에 邁進하고잇다는消息이 英國委員에게報告되며 芬蘭은 日本開催의强敵으로서 今後에잇서 一九四○年올림픽大會開催地의 選擧問題를 싸돌고 相當한 波瀾이잇슬것이로 豫測된다

昇段進級者

朝鮮研武館

朝鮮研武館에서는 지난二十三日 午後七時부터 同道場에서 定期昇段進級試合을 行한바 이날은 同館直接關係校인 普專、普成高普、大東商業、儆新學各柔道部에서 出戰하야 盛況을이루엇는데 同館員만 四十一名의 昇段進級者를내엇다 한다

▲二段 李寅錫 ▲初段 金成坤 韓直敎 林候補 金在勳 金寅濬 ▲一級甲 兪炳東 林承日 ▲二級甲 尹澳海 安秉璜 金奎烈 ▲三級乙 金柴石 宋球鎬 金壯根 李詰載 ▲四級甲 周道衡 ▲五級 金南均 姜宗植 梁元錫 李福吉 朴熙穆 ▲四級乙 李在甲 鄭雲克 姜宅圭 ▲五級乙 姜大張 甲李根 李裕宅 ▲六級甲 黃起祚 安秉雄 張炳斗 李智寬 鴻舜 祺愚 延聖基 ▲少年部 朴盛 興世 文乙漢 六級乙 金谷基 五級夏 張炳鈺 乙權 基秋 基燦

十二團體參加한 聯合柔道

卅日靑年會館서

朝鮮柔道有段者會主催의 秋期柔道聯合紅白試合은 明三十日午後一時半부터 鐘路中央基靑體育館에서 열릴터이라함은 既報하엿거니와 二十八日 參加期日에 申請한 團體는 다음과갓다한다 (以下無順) 中東學校 大東商業 普成高普 普成專門 培材高普 儆新學校 延禧專門 順道會 泰安立武館 開城光武館 朝鮮研武館 中央基督敎靑年會柔道部

體育會理事會

今廿九日同會館서

朝鮮體育會 理事會는 今二十九日 午後四時半부터 同會館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이날의 討議件은 綜合競技大會 會計報告와 其他 重要事項이라는바 同會理事諸位는 無漏參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今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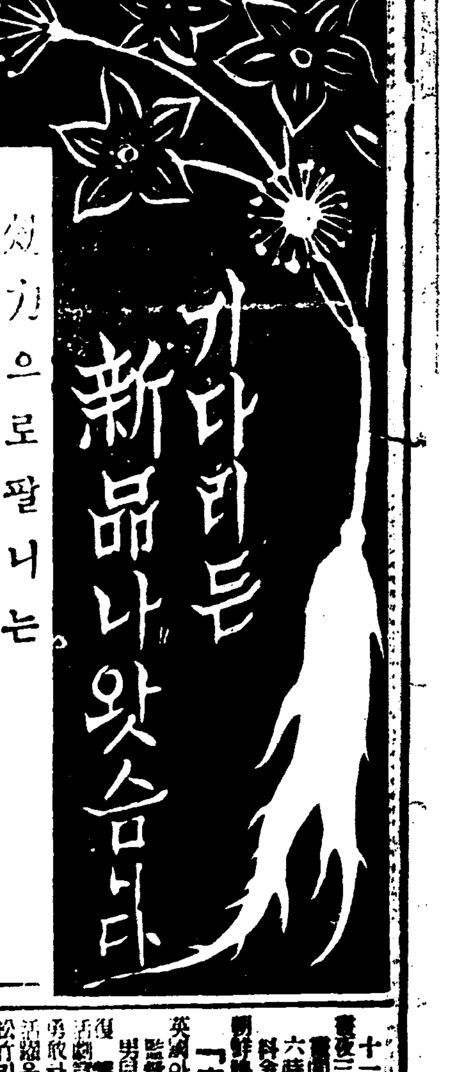
▲籠球=中央基靑主催 第九回籠球聯盟戰中學第一部 首位爭奪戰第三日 養正對中東 午後七時二十分 鐘路靑年會體育館

自古로名産이요天下의山蔘이란絶讚의声援

機張土種人蔘

效力으로팔니는

가다리든 新品나왓슴니다



機張土種을 歡迎하는 理由가 어데잇스며 朝鮮은勿論 멀니 海外에까지 進出되는原因은 어데잇슴니가? 服用家의 効能에서 感嘆한 宣傳으로! 効力이 現著함으로! 成分이 證明함으로

本蔘의特長

絶對神効 成分優良 色彩佳麗 品質卓越

耕作地 東萊郡日光面伊川里 玉蒲人蔘圃 主崔翔甲

販賣部 釜山府瀛州町三一番地 玉蒲乾材藥局 振替釜山六八〇二番 電話二六〇四番

레코ー드 ★……콜럼비아·

恨만흔身勢 蔡奎燁

世界第一

二十五円以上 各種

★콜럼비아蓄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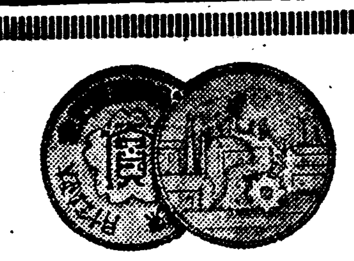
京城 金 金地金銀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2)〇〇七四番

男子의性器弱小

ホリック療法으로健全發育을 性格까지男子답게快活하게一變

性機能障害에 對하야 世界的 發明의本器로 自己절로秘密簡便히 物理療法을 行하면 可驚할 眞空吸引力에 依하야 發育을 促進식힘과 同時에 理學的인 作用에 依하야 手淫過房의 害毒早漏、陰萎를 回復식히며 機能을 强大케 함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內地二五錢 植民地五五錢 ◇包莖剝지안코 自分가 秘密히 成形함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內地十五錢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東京新療法研究所 振替東京七七三九番

計告

靈溪吉善宙牧師以病患今月二十六日午前九時三十分別世故玆以訃告

葬儀日時 十二月三日(火) 午後一時 葬儀式場 平壤崇實專門學校大講堂

痔 手術안코 오세로 オセロ치의 藥으로곳치라 全國各藥店에잇음

商標 千 고추가루 壽 部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西二八三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슴니다

朝鮮映畵 「春風」 宣傳週間 十一月二十八日부터本館 電擊믹스 明日의太陽 門질이와아가씨 朝鮮劇場

二十九日부터特別大興行 龍涎香 ワルツ合戰 中央館

十一月二十七日부터 悲演五月雨草紙 ターザンの復讐 大山道中 大正館

十一月二十七日밤부터 大勝利 舊戀 無情의꿈 桃花劇場

憂慮되는二世健康

寄生蟲保持者百%

蛔虫이最多、鞭虫이다음으로

可恐! 平南三校統計

【平壤】평남도위생과에서는 학무당국과 협력하여 학동의 기생충보지를 철저적으로 시험키로되여 전력을 다하고잇든터인데 수일전 강서군하의 기양(岐陽) 강서(江西) 초리(草里)의 세 보통학교학동을 검정한결과 기생충보지자는 백퍼-센트되는 학교도 잇다는것을 발견하엿다

초리보통학교생도 백오십륙명중 전부가 회충(蛔虫)을 보지하고 잇슬뿐아니라 이우에 편충(鞭虫)보지가 삼십명이나 잇섯다는 놀라운사실이 발견되엿고 기양보통학교는 오백명중에서 사백구십이명이 회충을 가지고 섯고 편충보지자도 오십오명이 잇섯다

강서보통학교 오백칠십오명중에서 회충오백륙십오명 편충이 십륙명등이 잇섯스므로 위생과에서는 학동의 기생충의 유무를 검사할 필요가 업시 전반학동에게 일률적으로 복약을 식힐것이라는 단안을 나리어 그대로 실시케 되엿다한다

孟牧師宣教記念式

【馬山】「마구렛」맹호은(孟晧恩) 목사는 일천구백십년에 북국으로부터 조선에건너와 이십오년동안에 조선사람의 종교와교육사업에 노력하여왓다는데 지금도 현 창신학교장(昌信學校長)을 비롯하야 삼사처의 교육기관에 관계를 가젓스며 경남각교회에도 만흔공로가 잇섯다는데 지난이십오일은 씨의선교이십오주년기렴식을 마산문창례배당에서 거행하고 창신학교강당에서 피로연이 잇섯다는데 경남각교회로부터 다수의래빈과 수천회원의출석으로 성황을 이루엇다 한다

撫順奉天營口間 大運河開鑿計畫

撫順炭의運賃輕減의目的으로

總工費二千萬圓豫算

【撫順】만철(滿鐵)의보고(報告)에 의하면 무순탄광에서 석탄운반비에 대하여 좀더 비용절약하려고 다년간 현안중이든 무순봉천영구(撫順奉天營口)간이백오십킬로의운하(運河)를리용하여 선편(船便)으로하운(河運)계획이 섯립되여 총공비이천만원을 드려 기선이 출입할수잇도록인공(人工)으로써 운하(運河)를 굴취(堀取)하려고 립안중인데 머지안은 압날에 실현하게되리라는바 현재의혼하(渾河)를깁게파는 관계상 수전(水田)개간한곳에 인수(引水)가 여전할는지 의문이라고하여 수전(水田)개간자들은 전도를 크게주목중이라한다

正德婦人會創立

兩町婦人結合

【釜山】부산부영주정(瀛州町)과 초량정(草梁町)에잇는 이십세이상 사십세이하의 부인을 망라하야 부산정덕부인회(正德婦人會)를 조직하랴고 여러가지로 준비를하던바 지난 이십사일 오전십일시반에 부산공립보통학교에서 김상홍(金相洪)씨의 사회하에 개회하얏는데 출석회원은 륙십여명이며 당일당선된 역원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 鄭德龍 副會長 吳泰旬 總務 金順伊 書記 金順連 財務 金千順 幹事長 李相順 幹事 金英淑 裵玉順 金蓮紡 李末季 白桂淳 徐奉玉 李南善 許玉伊 朱命善 鄭周 金相洪

酒代督促한다고 叔侄作黨毆打

【沃溝】지난이십사일 옥구군웅천면독산리(沃溝郡熊川面獨山里)에서주류판매업하는 한봉수(韓鳳洙)는 동리(同里)에 거주하는고희동(高熙童)과 고용주(高容周)라는 숙질간이 작당하야 여 전긔한봉수를 구타하엿다는바 그내용을들은바에 의하면 한봉수가고희동(高熙童)에게 술갑을 가혹히독촉한다고 이갓치 한것으로 생각하고 그와가치 구타한것으로 피해자는 방금웅천해창의원(熊川海昌醫院)에 입원치료중인데 상주일치료의 중상으로 피해자는 진단서를첨부하여 고소를제기하엿다한다

送電停止

附屬品故障으로

【長淵】장연전긔주식회사에서는 이래정전(停電)이 빈번하야 일반의 비란이 적지안햇섯는데 지난이십오일에는 또다시 발동긔 제삼호메-타가 타서 압흐로십여일에 달하는 정전을 보게되엿다는데 이는 예비품이업는관게상 신호공장에가서 가저오지 아니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게되여 이십륙일에 당회사긔사(技師) 리종현(李鍾絃)씨가 급거히 신호로 갓다는데 정미업계와각 상계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비란이 자심하다 한다

作業中感電되여 人夫一名卽死

【新義州】룡천군 양하면 신창동(龍川郡楊下面新倉洞)이백이십칠번지 량학원(梁學元)(二○)은지난 이십이일 오후륙시반 삼교천(三橋川)수리조합 제이양수장에서 작업중 배전선(配電線)에 감전되여 즉사하엿다한다

林、房兩氏特志

【寶城】보성군회천면 천포간이학교(東浦簡易學校)가 소화구년사월이신설된 동면서당리(書堂里)에 신설됨에 대하야 동면 동리리상현(林相鉉)씨는 부지륙백오십평과 현금이백원을 회사하고 율어면화죽리방재홍(房在洪)씨는 현금이백원을 회사하야 지금까지 면면의 칭송이 자자하든중 금원삼십원을 동교육사업에 도움쓰가 동이 백사십사평을 희사하엿슴으로 면민일반은 방씨의 교육에 대한 특지를 칭송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罰金十六萬圓

骨牌令違反으로

【平壤】평양세무감독국관내 작년도중의 골패제조허가자는 륙십칠명으로 마작(麻雀) 백삼륙조 화투(花鬪) 투전(鬪牋)등 삼만구천칠백륙십사조에 달하여 그세금은 팔천사백원에 달햇는데 골패령위반으로 걸거된것은 안동(安東)에서 밀수입한 인지업는 화투 삼마칠천팔백사십이조를 전국에 밀매하려다가 발각되여 걸거되여 십만원의 벌금을 납입한것을 위시하여、기타소액의 벌금까지 합하여 십륙、칠만원을 초과하엿다한다

平壤府公會堂事件 松平子爵을訊問

事件進展이極注目處

【平壤】말성을 부리든평양부회창설이래 미증유의 추태를 연출하든 평양부공회당 건설부지(敷地)를싸고돌든 모임본내지인부회의원의 독직사건은 금번여름이래 평양지방법원검사국의활동을 보앗고 일전 모씨의집을 가택수사한이래 증거수집에 전력을다하든중 검사국에서는 더한 확증을 잡은모양으로 이사건에 가장관계가 깁흔 동경(東京)의 송평자작(松平子爵)을 참고인으로 호출하여 이십륙일 암성(岩城)차석검사가장시간 취조를 한바잇섯는데 송평자작의 공술여하는 사건의 급진전을보기에 이를것이라하여 검사국의 금후의 동향이 아연주목을 끌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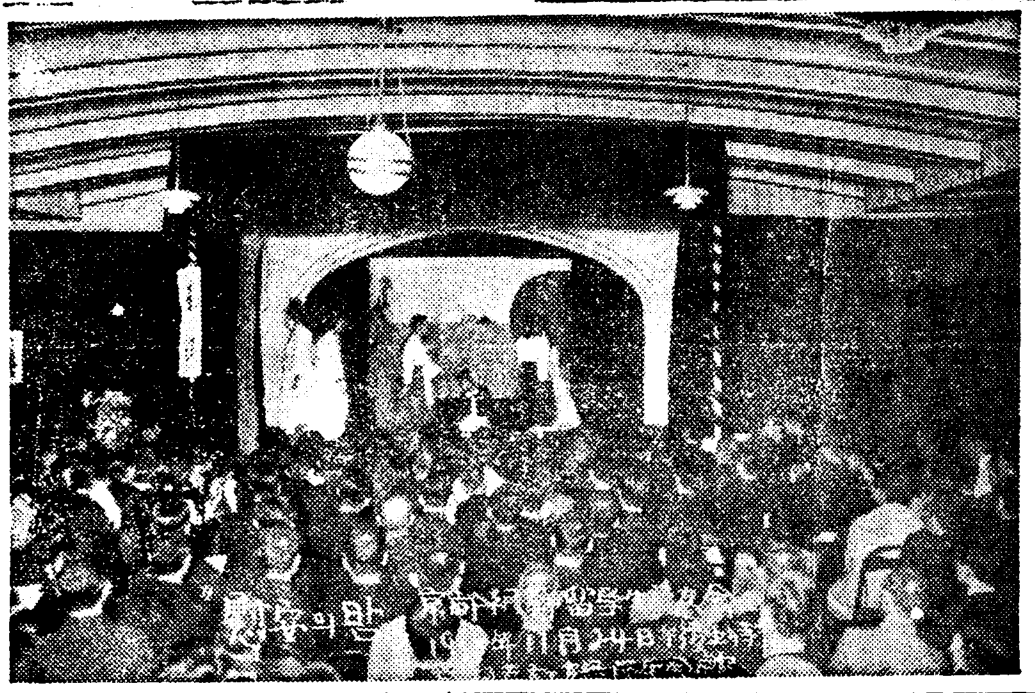
順南水組에서도 組合費一割引上

組合員態度가注目處

【順川】평남순천군하에잇는 순남수조(順南水組)에서는 금년도 조합비를 매단보에 일할식 인상부과키로 결정하엿다는바 동조합은 소화오년창설이래로 연전허 흡래한 흉작과 전례에업든 조가저락으로 인해 몽리구역내에 지주와 소작인들에게는 채무만 늘어갈뿐임으로 수전등사에 한탐을 늣긴나머지 수리조합을 저주하면서 소유토지를 헐가로 방매하여 가지고 산간으로 들어간지주도 잇섯고 수조구역을 버서나노라고 류리에 길을 떠난 소작인들도 만핫섯다한다 그런든것이 금년에는 풍작이들고 벼갑이 올라서「금년에나 길을 좀 나보다」하고 은연중에 깃버하든 그들에게、수조비인상결정은 청천에 벽력과 가튼 큰충동을 주리라는데、조합당국의 인상결정에、순종할지가 의문이라하며、금년도부과될 보합비는 여좌하다고한다

一等級反當	九圓四六錢	(從前一割高)
二等級同	八圓五八錢	(同)
三等級同	七圓五九錢	(同)
四等級同	六圓二七錢	(同)
五等級同	四圓八四錢	(同)
六等級同	三圓八五錢	(同)

京都朝鮮留學生 〃學生의밤〃盛況



【京都】경도에잇는 조선류학생학우회에서는 경도각학교에 재학하고잇는 조선학생의 연극「공굴」를 주로한 학생의밤을 지난이십사일하오 오시부터 동지사대학 학생회관에서 개최한바 정각전부터 만원된 관중 무려 여의만원이엿는데 끝으로긔사부장 정준모(鄭俊模)씨의 십사발표가 잇섯스니 결국극에 잇서서는 중화학에 동심중학(東心中學)대학 정문학에 입명관대학(立命館大學)이 영예의 우승학을 차지하엿다한다

◇寫眞—學生의밤의一景

雇主夫妻가共謀 酌婦를打殺暗葬

些少한말다툼이原因이되여 異域哈市에버러진慘劇

【哈爾濱】료리점(料理店)을 개업하려고 고용(雇傭)인당년 이십세되는 작부(酌婦)를 란타하야 죽이고 시체(屍體)를 부억에 파무더자긔의 범행을 감추려든 흉악한부부=지난 이십이일 오전십시경 합이빈 부가전(哈爾濱傅家甸) 북삼도가(北三道街) 이십오호에 거주하는 리호준(李鎬俊)(三六)과 그의 처리소란(李小蘭)(三一)은 오래전부터 전긔장소에서 료리점을 개업하려고 허가(許可)를 신청하고 그준비에 급급하든중 다리고온 작부를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일주야(一晝夜)나 란타(亂打)하야 죽은시체를 자기집 부억에 매장(埋葬)한것을 합시령경관원(哈市領警官員)에게발견체포되여 즉시상원사법주임(上原司法主任)과판하검사사무취급(板下檢事事務取扱)이하 경찰의이등 현장에 급행하야 발굴검시한바에 의하면길히 오척가량되는 매장처와 시체를 싼침의(寢衣)와 이불은 선혈(鮮血)로 물들어잇스며 시체는 청자색(靑紫色)으로 부어잇고 출혈량도 상당하엿스며 삽분의일이상이나 되여 처참한 학살시(虐殺屍)는 무참히도 마사(麻絲)에 얼키여잇섯든 것이라는데 피해자(被害者)는 매자(梅子)(二○)로 (本名未詳)그는 지금으로부터 이변전에 전긔리호준이가 도남(洮南)에서 료리점을경영하든때부터 그의 매몰이되여오다가 최근에 매자(梅子)가아편(阿片)에 중독되엿든것이 원인이엿든지 그와가티 끈둥으로 때려서 죽어가는것을 목을졸러 죽인것으로 판명되여 목하경본서에서는 전긔부부와 동거하던 작부견자(酌婦絹子)를 엄중 취조중인데 이에일반은 그리면에 어떠한암흑면(暗黑面)이잠겨잇슬른지 모른다고하야 자못주목중이라고한다

安東縣第二普校 來月一日에開校

總工費二十萬圓으로新築 一千二百名을收容

【安東縣】안동현제이보통학교는 수년전부터 현안중에잇던바 금번여름에 공비이십만원으로 긔공하여 최근에 락성되여 오는 십이월일일부터 개교하리라는바 사립신화(新華)학교와재생(濟生)학교는 폐지할 제이보통학교로 생도천삼백명과 교원까지전부 이전수용된다고한다 그런데 제이보통학교명칭은소화(昭和)보통학교로 변경되고 현재의제일보통학교는 명년부터대정(大正)보통학교로 변경키로 되엿다하며 준공된학교건평수는 벽돌이층 일천칠백평인데 강당은명년에 개축할 예정이라한다

貨物車列車衝突 二名重傷

【新義州】신의주부 하정(河町) 구번지 자동차조수(助手)최지균(崔芝均)(二三)은 운전수가 병으로 인하야 사용하지안는 화물자동차 평북제삼천이백칠십사호를 조종하여 부내하정구번지 리히선(李熙善)룡천군외상면정거동(龍川郡外上面停車洞)십팔번지오용섭(吳用涉)(二○)등 두명을 태우고 남시(南市)로 향하는 도중 남시역으로부터 남방약 이백미돌되는교차지점에서 이십오일오후열한시 삼십륙분 남시통과하는 제오천일백사십이렬차에 충돌되여 차체가대파되는 동시에 운전하든 최와오는 중상을 입어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訂正申請—貴報本月二十日朝刊第三面「外山面面議員의爭鬪事件漸擴大」라는記事中外山面會計員「卞永秀」는「李永秀」의誤植이오니訂正하시기바랍니다

昭和十年十一月二十五日 外山面 李永秀

朝鮮日報編輯局長 殿

美晶ポマード 포마-도

美晶クリーム

갑싸고品質조키로처음보는 美晶포마-도가새로나왓다

社會의一員으로서 奮鬪하시는紳士엿어분 希望을압헤두고 工夫하시는學生엿어분 반드시아침마다 頭髮을整齊하시고 事務所와 敎室에드러가십시요 겻무수수한머리로남을對하면 端正치못한品性이들어남니다

얼골빗이검다고 落心마시고 살결이거칠다고 傷心마서요 갑싸고 品質조흔美晶크림만쓰시면 白薔薇가튼살결로변해집니다

文仙月孃

내얼골에는 粉이잘안먹기에 有名하다는舶來品크림까지써보왓스나 그역시 신통치안트니만絲瓜의精으로 새로만드럿다는 美晶크림을粉바르기前에 열어번발너보왓더니 엇더케도 粉이잘펴지는지 맛나는동무마다勸하고잇슴니다

文錦子孃

冬節을當하면 살결이러저서 속이상하더니 저번날엇던동무가 美晶크림을발너보라하기에 멧칠동안발너보왓더니 요사히는 엇지도보들보들하고 고와젓는지몰나요 品質보와서는 갑이여간싸지안어요

柳錦桃孃

나다려 젊어진다고요 그늘의줄음살이업서지드니내가보기에도 퍽 젊어진것갓태요 내가愛用하는美晶크림을 어머님도요사히는 발느시면서 나가티늙은사람도 주름살이펴진다고하시겟지요

全國百貨店·藥局·小間物·化粧品店에잇소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 發賣元 大川盛進堂

今日! 寸時라도이진수업는常備藥

銀粒仁丹

언제나仁丹 언제나健康

仁丹은

胃腸의消化機能을完全케하며

頭腦를明晰하게하야

疲勞를恢復하며

特殊한芳香은精神을爽快케한다

近代人의必携劑

藥價

御試用百三十粒 十錢
富士登山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旅行用 百粒 三十錢
御家庭用 千粒 五十錢
御徳用入二千五百粒 壹圓

仁丹齒磨本舖 大阪市 森下博大藥房

鰮景氣反映으로 巾着網申請殺到

鰮機船巾着은魚族枯渴이念慮 水產課極力制限方針

東洋岸 鰮漁業에잇서서 巾着網漁業은 發動機船의 發達과 今年鰮漁로 稀有의 好況을 呈하야 本漁期에잇서서는 魚油 魚肥의 價格高로 咸南北과如한것은 一網完全히 一萬五千圓의 純益을 엇고잇슴으로 큰 利權化하고잇는데 그希望申請이 總督府水產課에 殺到하는 狀態이바 總督府에서는 그應接에 奔忙하는터이며 當局의 方針으로는 巾着網은 魚族을 涸渴할 憂慮가 잇는 反面에 右漁獲制限은 高級品生產이 不可能하므로 漸進的으로 認可하여줄 意向이여서 極力制限하고잇다 한다

輸出柑橘의 取締規則發布

實質은輸出禁止目的

日本內地 柑橘類의 外國輸出은 同業組合의 統制에依하야 年五十萬箱 程度限 輸出되고잇는데 最近 歐洲方面으로부터의 注文이 殺到함으로 右統制網을 避하야 朝鮮經由輸出이 續出하야 日本內地의 統制를 紊亂하기때문에 商工省에서는 그 取締에 對하야 總督府에 交涉中이든바 總督府로서도 朝鮮產의 柑橘類는 濟州島等 極히 少部分에 不過하야 그 輸出取締를 하야도 큰影響이 업다고하야 府令第三十九號로 「輸出柑橘의 取締에關한件」을 二十八日附로 左記와如히 公布하엿다 이府令은 表面上 柑橘類의 輸出에 際하야 當局의 許可를 要하기로되엇스나 實質은 거의 輸出禁止의內容을 包含한것이라한다

▲輸出柑橘의取締에關한件

營利의目的으로서 柑橘을 十月二十日부터 翌年 一月十日까지의 期間內에 亞米利加洲(布哇包含)又는 歐羅巴洲에 輸出하는 者는 左의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朝鮮總督에 提出하야 許可를 受함

一、品名
二、數量(生產地別로記載함을요)
三、容器의寸法
四、容器에表示하는商標又는記號
五、仕向地
六、荷受人의住所及氏名
七、輸出港
八、陸揚港
九、積出의年月日及船名

前項의 許可를 受치안코 柑橘을 輸出하거나 又는 輸出하라는 行爲를 한者는 三月以下의 懲役又는 百圓以下의 罰金에處함

附 則

本令은 昭和十年十二月一日부터 施行함

리트혼工場을 元山에設置計畫

中川湊氏의 重晶石을 原鑛으로하며 리트혼工場은 東拓融資를 어더 昨年來 東京에서 試驗中이든바 現在 一日二、三噸의 處理에不過하나 品質에잇서서 獨逸品에比하야 優秀하며 生產費에 잇서서도 大體他國品보다 低廉하야 그것을 事業化할 計畫으로 具體案을 作成中이라는데 右리트혼工場은 重晶石이 朝鮮江原道에 잇슴으로 督府當局도 될수잇는대로 朝鮮內에 誘致할意向을 가지고잇는 關係로 元山에 工場을 建設하려고 工場敷地도 벌서 元山近郊에 買收하엿스며 元山工場은 來年初建設에 着手할모양이라 한다 그때

慶北農用林地 初年實施面積二萬町

設定戶數一萬九千戶

慶南道에서는 農家經濟의 更新 多角農經營의 確立 自給肥料의增殖獎勵 金肥節約을 勵行하기爲하야 今年度부터 十個年計劃으로 農用林地의 經營에 着手하엿는데 右計劃이 遂行되는날이면 道內十三萬一千五百十二戶의 農家에對하야 二十一萬九千五百十二町步의 村野를 經營하게될것이며 第一年度의 成績을보면 計劃數 二萬八千二百六十六戶四萬五千五百四十九町步에 比하야 實施戶數는 一千十六戶의增加를 보아 二萬九千二百八十二戶이며 面積은 三萬八千八百二十町步로 豫定보다 도로혀 六千七百二十九町步의 減少를보엿다한다

朝鮮의窯業原料

日本內地方面서重要視

輸出陶磁器의 旺盛한 生產에 對하야 朝鮮內窯業原料의 賦存 其中 慶南河東의 카오린과 如한 良質한것으로 日本內地方面에서 重要視하야 그結果 近來 京都窯業試驗所로부터 朝鮮內의 右資源調查를 하기 爲하야 朝鮮으로 渡來할 豫定이라 하며 陶業會社에서도 各其 進出하려고 重要視하고잇다 한다

문에 大藏 五十萬圓程度의 株式會社를 設立하려라는데 東拓으로부터는 그要望資金을 引續融資하기로 되엿다한다

讓渡許可

自動車運輸事業

十一月十八日附로 自動車運輸事業의 讓渡許可된 線路及名義人은 如左하다

一、旅客自動車運輸事業讓渡
讓渡人 共榮自動車株式會社
讓受人 朝鮮自動車株式會社
路線 金泉─星州間三二、九粁

二、物品自動車運輸事業會社合併에依한事業繼承
承繼者 平安北道龍川郡龍川面 鮮滿交通株式會社
被承繼者 平安北道新義州府 新興自動車運輸株式會社

路線
一、平安北道宣川郡宣川邑川南洞九八番地로부터 同道朔州郡外南面大館洞二五二番地까지 七七、二粁
一、平安北道宣川郡宣川邑川南洞九八番地로부터 同道龜城郡天摩面塔洞二七九番地까지 三七、二粁
一、平安北道宣川郡宣川邑川南洞九八番地로부터 同道同郡台山面五味洞六二四番地까지 一一、八粁
一、平安北道龜城郡梨峴面院倉洞二九一番地로부터 同道義州郡古寧朔面貢倉洞一五五番地까지 七〇、三粁

三、不定期貨物自動車運送事業會社合併에依한 承繼
承繼者 平安北道龍川郡龍川面 鮮滿交通株式會社
被承繼者 平安北道新義州府 新興自動車運輸株式會社
路線 平安北道義州郡古寧朔面貢倉洞一五五番地로부터 同道新義州府榮町二丁目三番地까지 五四、三粁

火賊 林巨正 (226)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六의五

배돌석이가 황텬왕동이에게 핀잔을바든뒤 얼골비치 붉어젓다 처음에 황텬왕동이가 대장들어 날 여적모의햇니냐고 말하는것이 실업는말이라도 귀에거치던데다가 또 황텬왕동이가 서림이의 우습의말을 고지듯고 정말 창피한사정이나 한줄로 아는것이 맘에 불쾌하야 배돌석이는 슬몃이 끌이 난것인데 황텬왕동이는 배돌석이가 자긔말에무안을 타는줄로 짐작하고 풀어말한답시고

「무안해할것까진 업소」

하고 말하얏다

「무안하긴 무에 무안해 별괴극한소리 다듯겟다」

「소리 왜 질르우 사람귀창떨어지겟소」

「네가 날 깔보는모양이냐」

「무안에 취해서 끌이 낫구려」

「글세 내가 무안할께 무어냐」

「그럼 왜 끌을내우」

「골내는게 잘못이냐」

「그러케 끌낼것가트면 내가잘못햇나보우」

「잘못햇다는데 다시 껄 무어 잇소」

「다시뇌면 엇절테냐」

「이거 막 쌈을하려 덤비는구려」

「쌈할테면 해보사 너가튼놈은」

「너가튼놈이라니」

황텬왕동이도 얼골을 붉히엇다 길막봉이가 배돌석이 황텬왕동이의 사이를 타고 들어서며

「이러다간 참말루 쌈되겟소」

하고 두사람을 번가려 돌아보고 서림이가 두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공연이 실업는말하마듸를해서 두분사이에 말성이되엇스니 미안하우」

하고 말한뒤

「배두령 고만 가십시다」

하고 한두걸음 들어서서 배돌석이의 군복소매를 끌엇다

「도둑질을해먹구살드래두 도둑놈의 의리는 잇서야지」

배돌석이는 황텬왕동이를 노려보고

「내가 의리업는짓한게 무어야」

황텬왕동이는 배돌석이를 흘겨보앗다

「괴자사 부처님 아페서 맹세할때 이러케 막보기로햇드냐」

「누가 먼저 막보구 대들엇기에 말이야」

「네가 대장형님 내버리구 어뒤루가갈제부터 맹세를 소홀이안녀기는줄 알엇다」

「그건 웬 되지못한수작이야」

「되지못한수작 나는 되수작할줄몰은다」

배돌석이가 다시한번 「되지못한수작」하고 뇌며 곳 서림이손에 잡힌 소매를 뿌리치고 아프로 내닫어서 황텬왕동이에게 덤비랴고하얏다

「이거 웨들 이러우 글세 고만두우」

길막봉이가 사이에서 가로막고

「졸개들이 보면 창피하지안쏘 고만두구 갑시다」

서림이가 뒤에와서 붓들엇다 황텬왕동이가 다시 아무 소리안코잇섯스면 배돌석이도 그럭저럭 고만두엇슬지 몰을것을

「덤비면 엇절테야 검어초립의 버릇이 그저남어서 아무데나 덤비려구」

황텬왕동이의 뇌까리는 말이 다는불에 기름을 끼어 언저서 배돌석이는 펄펄뛰게되엇다 배돌석이가 버서던진 군복을 주어들고 황텬왕동이를 노려보며

「우리 잇다가 단둘이 만나자」

하고 별렷다

「오냐 내이[illegible]다 너가터 미천을 잘랏는놈이 엇제 지지하천 백정놈아들에게 누의는 바첫느냐 이놈아 접역초립이 엇더탄말이야 말좀 해봐라」

뒤에서 붓드는 서림이를 떼다바질르며 곳 군복을 훌훌버서 내던지다 저구리아를 들어제치고 칼자국에 군살이 더덕더덕 부튼 가슴을 주먹으로 땅땅첫다 아페서 가로막는 길막봉이를 밀어저치랴고하는데 길막봉이가 밀리지 아니하야

「저리 비켜라」

소리를 질럿다

「이게 무슨짓이요」

「말리지말아 내가 오늘 죽든지 청석골을 하직하든지 할테다」

「여보 좀참우 우리형제들새에 이래서야 말이되우」

「형놈 형가리안아는놈하구 형제가 다무어냐」

「우리가서 여러시모여안저서 시비를 따저봅시다」

「아니다 내가 저놈하구 단둘이 따저볼테다 저리좀 비켜라」

「글세 좀참우」

「너까지 날 막보느냐」

「막보는건 다무어요」

「안비켜줄테냐」

「못비키겟소」

「오냐 안비켜줄테면 고마둬라 난 집으루 갈테다」

「옷이나 입구갑시다」

勞働市場巡禮 ⑬ (漁場篇)

風前燈火와가튼 漁村民의生活相

嚴冬을압두고그들의前途暗澹

元山支局…一記者

元山港灣內外와 島嶼等에는 千餘의 定置漁場이 配置되어잇다 規模가 크기로는 『오오시기』그 다음 『小台網』 그리고 『角網』 等이 맛치 要塞陣地와가티 捕獲陣을 치고 魚群의 來游를 기다리고잇다 이것을몰으고 魚群들은 流浪의 漂泊者와가티 定處업는 旅行에 고달픈몸을 잇끌고 돌아단니다가 가로막은 漁網의 『미레』(防衛)을 만나 이것을 避해서 가다가 어느듯 아지 못하는 사이에 巧妙한 陷穽에 들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나 鰮魚가튼 고기는 生物의 傳性인 種族保存熱이 원수가되여 海邊의 海草바위나 岩石等에 알을 슬라고왓서 自己의 運命을 決定지웁고이것을 잡바몰는게 되는것이라 이러케 魚類의 動態를 利用하여 捕獲하는것이다

『저ー 파런바다물도 임자가잇다』하고 녯날할머이들은 말할런지도모르나 陸地의 田畓과가티 現代社會制度에잇서는 이바다도 임자가잇는것이다 海面의所有와 賣買等이 그와달은것이업다 다른點이잇다고하면 그것은 陸地의 農業에比하야 投機事業으로서 興亡이 至極한것일것이다

只今은 가을철이되여 小台網漁場의 鰮魚잡이 時節이다 그러나 十一月中旬인이때는 撤網期가되여 沿岸各漁場은 漁獲의 不振으로 閑散하기가그지업다 今年中 各漁場의 漁獲高를 보면 永興灣化島附近과 松濤園附近의 漁場에서는 二三千圓程度로 漁獲한곳도 잇스나 多少凶漁로 損害를 보는모양이라고한다 그리하야 沿岸一帶는 秋氣이 蕭瑟하여 더욱이나 漁場主보담 雪寒이 닥처올 嚴冬을 압둔 沿岸一帶의 三四百名의 雇傭勞働者들의 生活이 크게걱정된다고한다 이漁場의 雇傭制度는 다른勞働市場에 比하여 特殊하게 大槪步合制로되여잇서서 凶豊漁의 關係는 漁場主와한가지로 그들生活에直接關係가된다 한漁場에 從事하는 勞働者는 普通五名式으로 八月初에 設網하게되면 十一月下旬까지 四個月間 寒日이어서 그들과 바다와 싸우게되는데 그러면 그들은이 漁期에 얼마나한收入이 그들의손에 쥐어지는가 그들의 生活은 屢年이만치 特別한 수가업는것이다 假令 一千五百圓假量어치 잡엇다고하면 그會計의 方法이 漁場을 딸아 各異하야 均一치 안치만 大槪는 漁場主가 專橫으로 自己의 압차림을 다하고 乃終에는 부억데이할머니 목수까지 잘너내여먹은후 勞働者들의압헤는 每人當겨우 七八十圓程度밧게 차례에 오지안는다고 한다 그럼으로 四個月間에 日當六七十錢程度밧게 되지안흐니 凶漁가 젓다고하면 그들의 生活의 裏面이 어떠할것을 알수잇다 『이것도財主의 노름이야』하고 그들이 長嘆息하는것도 無理가 안니것이다

어느날 나는 S灣附近에잇는 漁場에 갓다 幕附近에는 그물뎅이가 드문드문싸여 『덩장마』(漁幕)를 차젓다 幕附近에는 『갓바』(雨衣)들이 널려잇다 幕內에는 漁夫들이 가로세로누어 午眠에잠겨 南柯一夢ー 그들은 設網으로부터 撤網까지의 동안은 아모리 집이 近에잇서도 幕內에서 寢食을 한께하는共同生活을 營爲한다고한다 午前十一時 그들은 깨여나서 모도 바다로 나갈準備를한다 元山第一漁市場의 『난보』(競賣)時間이 午前七時半과 午後二時半임으로 이것을 參酌하여 漁場으로 나아가서 고기를잡는다고한다 그러기에 새벽에는 四時頃에나아갓다고한다 記者는 그들로부터 漁場의 求景을 願하여 承諾을엇고 浦村浦口에 매여노은 漁船으로 나아갓다 日氣는 淸朗한데 西風이 조용하게 불어온다 그러나 이런바람일수록 그들은 배질하기에 좃다고한다 배는 浦口를 떠나서 돗을달고 滄浪을 헤치면서 西北쪽으로 文坪附近을向하여 달린다 바다는 小波일어 그다지 큰激浪이업다 그러나 東風이불고 날세사나운날에는 이러케 順한바다도 집덤이가튼 波濤가 일어나서 危險하기 그지업다고한다 바다에는 군데군데 漁場의 떼(浮子)가 보인다 그리고 하나 둘식 漁場을 차저가는 帆船들이 오락가락한다 十里가 나 왓슬가 우리의배는 돗을나리고 漁場에다어엇다 漁場은마치 留部가업는 飛行機의 貌形으로 配置되어잇다 兩便 나래(羽)가튼것이 漁獲하는 통이라고 한다 漁夫들은 배를 가로대이고 소리를 맛처가며 그물을 처들어간다 거진처들어졋슬때에는 푸른물속에서 정어리떼들이 떼지어 빙글빙글 돌아가는것이뵈인다 『좁을엇다』하고 모도들조와할때 어대서선지 목소리를마처서 노래하는소리가 들린다 漁夫들은 모다고개를 들고 바다의 四面을 둘러보더니 東南쪽 한漁場에서 『가래소리』를 한다고한다 어느때 고기가 만히들면 漁夫들은 興에겨워서 『千里萬里 먼바길에 네어대갓다 이제왓노』하고 한사람이 先唱하면 모도들 목소리를 合하야 『에라ー쉬ー 산사래ー로다』하고 서로주고 밧기를거듭하며 조리가튼 『산대』라는것으로 고기를 퍼내여 배에 실는다고한다 그리고 고기가 하도만어 한배에다 실을수업스면 旗를둘러 『중다우배』(산일을는 中間運搬船)를 불너실는다고한다 그리고는 上字牙旗를 달고 前後 左右에 중다우배들을 거나리고 못(櫓)으로 들어갈때에는 참으로 豪氣잇게 배노래를 부르며 機嫌첫는다고 한다 우리의 배는 배의한칸쯤 정어리를 잡어 가지고 다시돗을달고 떠낫다 그들은 그가래소리하던 漁場을 바라보면서 브려운듯이 서로 이약이를 주고밧는다 나는 『이러케 배에다니기가 順平하면 那밥年이업겟다』고 물엇더니 『오놀가치 조흔날세가 一年에 멋날업습니다 이러케만 조흐면 우리차레에 이런業이도라오지안케요』 『그것은 웨요』 『우리보다 날고뛰는 사람들이 벌서 다차지햇슬것이요 이노름이 七星板을 등에지고 단니는노름이기에 우리의차레에왓지오』한다 배는어느듯S灣棧橋에 다엇다 그들은 나를 나려노코 漁市場을 向하여간다 그들이준몃드림의 고기를 그물에 싸들고 바다를 내다보면서 凶漁로 寒心하기 風前燈火와 가튼 그들의 慘憺한 生活이 聯想된다 누가 自己食卓에 올은맛잇는고기가 이러케 漁父들의 勞苦가 濟身한것을 생각이나할런고 오히려 이慘酷한苦役을 詩人墨客들은 仙境仙人으로 吟詠하니 世事를모르는 浪漫客들의 일이라 한들 憎惡에 갓갑지안흘수업다 바다와 섬 배와 갈메기들 이 아름다운天與의 風景을 언제나 그들은 盡賞할수잇스랴 이곳漁村에도 四時和春을 만나볼것이냐 나는이생각 저생각에 잠기면서 波止場을 뒤로하고 집으로발을 옮기엿다

─(此篇完)─

骨髓호루몬鐵製劑

네오부루도ー제錠

貧血과養生法

우리는空氣中 에서酸素를吸取하고 ㄸ體內에서 생긴炭酸瓦斯를 排泄합니다 이런大役을하는것은 血液입니다 그러나 貧血이起하면 血色素의 減少로 因하야 酸素의 運搬이 充分히 活用되지못하므로 숨이차고 耳鳴、眩暈、頭痛、全身의 倦怠感、甚하면 手足厥冷、顏色蒼白이됩니다 그 原因은 各色이다 第一로는 血液의 製造工場인

骨髓의病인데 赤血球의 製造가 不能케되던지 或은 製造能力이 低下하야 赤血球의數가 不足하게되는까닭으로 因한 貧血입니다 健康한人의 血液은 一立方粍中에는 赤血球 五百萬(女子는 四百五十萬)白血球 七千가량인데 貧血이起한즉 赤血球의 減少로 酵素가 不足하게 되므로 저근 運動에도 곳 숨이 참니다 心臟이血液을 送出하는 回數를 만케하는까닭으로ㄱ動悸가놉게되는」것입니다 또

黴菌을喰殺하 는作用을 가지고잇는 白血球의減少로 抵抗力이 激減하며 血淸도 減함으로 免疫性物質의 減少로 病에 犯키쉽습니다 이러한 形의 貧血에는 血色素의 材料가되는 鐵分을 與하는同時에 赤血球、白血球의 製造工場의 기름과갓은 骨髓成分을 與하지 안흐면 아니됩니다 第二로는 出血에依한 貧血로서 例하면 痔疾로排便時마다 少量의 出血이잇던지 或은

月經過多 等으로 貧血을 起합니다 또 呼吸器疾患者에만 흔 喀血 其他出血性素因이라하야 齒莖等에서 出血하는사람도 貧血이 起합니다 第三으로는 食物中에 鐵分이不足하야 血色素의 製造가 困難히 되는때에 起하는

食餌性貧血로 特히發育에잇는 어린이에게서 흔히 볼수잇습니다 大體로 어린이가 나서 一年가량은 젓(乳)과가튼 鐵分이 貧弱한것으로 잘자라는것은 胎兒時에 體中에 잇슬때에 母體에서 만흔 鐵分을 取하야 肝臟中에 蓄하엿든 까닭입니다 此點

妊娠中에어머니 가 갈슘과 鐵分의 攝取에 不足이업도록 하야서 하는것입니다 그러 어린이가 一年이 지나면 차차로 肝臟內의 鐵分이 업서짐으로 젓을 中止하고 普通食物을 먹여야 하는理由도 一은 此點에잇습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鐵分이 不足한 죽이나、팡 牛乳가튼 鐵分이적은 食物을片食하면 이에 所謂食餌性貧血이 起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小學校의 一二年生 特히 神經質의 女兒에게 만히 볼수잇는

學校貧血이라 稱 하는 一種의 貧血이 잇습니다 頭痛이나며 身體가 느른하고 食慾이업는등 의點은 一般 貧血時와가티 顏色도 蒼白하게 됩니다 以上과가튼 貧血에도 鐵分과 骨髓成分을 與할것을 잇어서는 아니됩니다

千瓦中에含有한鐵의分量

靑海苔	一·三〇
시금추	〇·三三
淺草海苔	〇·二五
미역	〇·二〇
卵黃	〇·一七
昆布	〇·一三
牛肉	〇·一三
人乳又는牛乳	〇·〇二八
부루도ー제	三·〇〇

네오부루도ー제錠은 造血强壯新藥 부루도ー제에 骨髓成分及骨質成分을 配劑한것으로 消化가된 蛋白質、腦神經의 主要가되는 레치친、吸收되기쉬운 鐵、燐、칼슘이 含有되어 잇습니다

主効

貧血、體質虛弱症、營養不良、神經衰弱、消化不良、佝僂病、骨軟化症、精力減退、婦人血道、產前產後의衰弱、히스테리ー等

藥價低廉

三十日量(三百六十錠入) 一圓八十錢
用量 大人一回 四錠
百八十錠入 一圓
千錠入 四圓五十錢
五千錠入 二十一圓

「生命의源泉」小冊請求次第進呈

京城西小門町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本店 大阪東區道修町

(KNB─59)